

공민지 2NE1 탈퇴... '7년차 징크스 못피해'

YG 엔터테인먼트 공식 발표...3인 체제로 계속 활동

강한 개성으로 마니아 팬층을 구축한 그룹 2NE1이 7년차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5일 "2NE1의 막내인 공민지가 더 이상 2NE1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일관되게 밝혔다."

추가 멤버 영입은 없다며 씨엘, 산다라 박, 박봄 등 3인 체제로 활동한다고 전했다. 2009년 데뷔 이후 7년 만에 트리오로 변신한 셈이다.

톱 걸그룹에게 데뷔 7년은 큰 고비다. 앞서 2007년 동시에 데뷔해 한때 걸그룹 트로이카를 형성한 '카라', '원더걸스', '소녀시대'가 대표적이다.

카라는 7년차인 2014년 멤버 니콜과 강지영이 잇따라 팀을 탈퇴하면서 해체 위기에 처했다. 새 멤버 영입을 추가 영입했으나 예전의 인기는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휴가, 한승연, 박규리가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떠나기로 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원더걸스도 그해 위기를 맞았다. 리더 선예가 2013년 결혼을 하고 출산을 겪은 데 이어 2014년 선교 활동을 이유로 사실상 팀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작년 선예와 소희가 지퇴하고 팀을 나갔던 선미가 재합류, 밴드 포맷을 선보였으나 파괴력은 떨리지 못했다.

팀워크가 탄탄할 듯했던 소녀시대 역시 그해 위기를 맞았다. 멤버 제시카가 팀을 탈퇴하면서 영원할 것 같던 9인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보통 재계약 기간과 맞물린 5~7년을 걸 그룹의 위기로 본다. 점차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도드라지고, 조명을 받는 정도 역

시 달라지면서 소속사 입장에서 균형이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YG 역시 이날 공민지의 자퇴 소식을 알리며 "세계적으로 봐도 그룹 활동을 7년 이상 지속시키기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며 "많은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NE1은 2009년 디지털 싱글 '볼라썬'으로 2NE1 멤버들과 데뷔했다. 이후 '내가 제일 잘 나가' '아이 돈트 케어' 등의 히트곡을 냈다. 미모를 내세우는 여는 걸그룹과 달리 개성 있는 외모와 실력을 앞세워 '원조 걸크러시 그룹'으로 인기를 끌었다.

2NE1을 비롯해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소속사가 팀을 계속 유지해가고자 하는 건 이롭기 때문이다. 새 걸그룹들이 치고 올라오다 해도 이미 어느 정도 구축한 팬덤과 해외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쉽게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민지의 탈퇴 표명으로 나머지 세 멤버가 혼란에 빠졌으나 양형석 YG 대표프로듀서가 2NE1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2NE1은 특히 새 신인 걸그룹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YG에서 상징과도 같은 팀이다. '빅뱅'을 비롯해 '위너' '아이콘' 등 합창 기반의 보이그룹은 YG에 충분하다. 하지만 'f(x)'와 '레드벨벳'의 SM엔터테인먼트, '미쓰에이'와 '트와이스'의 JYP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걸그룹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NE1을 놓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YG는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잘 극복하고 이겨



YG엔터테인먼트는 5일 '2NE1'의 막내인 공민지가 더 이상 2NE1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나가겠다. 가장 2NE1다운 가장 2NE1스러운 음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며 2NE1이



전북요트팀 전국요트대회 · 국가대표 선발전 금 4개 · 동 1개 획득으로 우수한 성적 거둬

전라북도요트선수단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 열린 '제15회 국민안전처장관배 전국요트대회 겸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호비6 부문에서 김근수 송민재(부안군청)의 금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김시인 조현주(부안제일고)선수의 420부문 금메달, 레이저 47 부문 안선진(하서중) 금메달, 옵티미스트 초등(저) 부문 윤서율(격포초) 금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전라북도 요트협회 김충희 전무이사는 "동계훈련에 성실히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하고 동계해안안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준 김종규 협회장님과 도체육회, 도교육청에 선수와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축구협,골키퍼클리닉 진행

전라북도축구협회(회장 김대은)는 전라북도 초, 중, 고 골키퍼선수 5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완산체육공원에서 골키퍼클리닉을 실시한다.

작년 1차 클리닉에서 큰 호응을 받아 연속해서 열리게 된 이번 클리닉은 김병수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코치가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지도하게 된다.

11일 오후 2시 부터 골키퍼의 기본자세, 정면캐칭, 사이드캐칭 훈련을 진행하고 12일 오전에는 각도 및 세이빙 훈련, 슈팅 집중훈련 등으로 구성돼 클리닉이 진행된다.

전라북도축구협회 유종희 전무이사는 "CK 자격증을 소유한 전담 지도자로 전북에 등록된 지도자는 7명뿐이지만 이 7명중 대부분 클리닉에 참석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어서 도내 축구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2001년 히트 영화 '엽기적인그녀'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차태현과 빅토리아 엽기적인 신혼생활을 다뤘

2001년 히트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15년 만에 돌아왔다. 전편이 엽기적인 연애를 그렸다면, 이번 속편은 엽기적인 결혼을 다룬다. 그간 세 아이의 아빠가 된 권우 차태현(40)이 제작사 신세네와 다시의 기투했다. 권우와 결혼해 엽기적인 신혼생활을 꾸리는 그녀는 그룹 f(x)의 중국인 멤버 빅토리아(29)다. 스크린 데뷔작이다. 차태현은 6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엽기적인 그녀2' 제작발표회에서 "전우 캐릭터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1편의 경우가 보통 학생이었다면 속편은 보통 남자·남편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현란한 발차기로 남편을 휘어잡는 빅토리아는 '예뻐 무대 이래로 가장 떨린다'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재로운 그녀는 중국에서 건너온 권우의 첫사랑이다. 당찬 캐릭터다. 그녀 민의 사랑 표현방식으로 권우를 힘들게 한다'고 캐릭터를 설명했다. 차태현은 "여인은 바뀌었는데, 방식은 한결같다"고 거들었다.

2편은 엽기적인 부부생활로 관객들의 웃음보를 잡을 예정이다. 이날 영상에는 두 사람의 버라이어티한 신혼 밤을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다양한 국가의 전통의상과 음식을 차려놓고 상대를 유혹하며 '엽기적인 나이트'를 연출했다. 영화 '화양연

화' 등도 패러디했다. 차태현은 "1편이 흥행하면서 극중 장면을 따라했는데 이번에도 기대된다"며 "신혼생활에 파격적인 무엇이 생기지 않을까. 단점은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했다. 1편에서는 교복을 입고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하이힐과 운동화를 바꿔 신는 장면이 주된 따라가기 장면이었다.

빅토리아는 "부부연기가 재미있었다. 오빠가 연기를 잘해서 금방 배역에 몰입하게 도와줬다"고 공을 차태현에게 돌렸다. "그런데 영화처럼 술친구 데려오면 싫을 것 같다"고 입을 삐죽거렸다. 차태현은 "남자들이 술마시다보면 그렇게 하는 실은 경우가 있다"며 남자들의 마음을 전했다. 빅토리아는 "때리는 신을 찍느라 스트

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근데 살살 때리면 느낌이 안 나고, NG가 나서 세계 때렸다. 진짜 소리가 크게 나서 깜짝 놀랐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예능프로그램에서 갈고뚫은 차태현의 주도로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근식 감독의 솔직한 발언과 배성우의 자연스런 리액션도 한몫했다. 차태현은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 부담도 많이 가고 기대도 된다"며 관심과 성원을 청했다. 빅토리아도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했다. 처음으로 한국으로 연기했다.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랑 부탁한다." 엽기적인 그녀2는 4월22일 중국 개봉에 이어 5월초 국내 개봉한다. /정해은기자



순창군 대통령기 전국남·여테니스대회 유치

순창군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최하는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테니스대회를 유치해 스포츠마케팅 실력을 과시했다. 유치 대회는 전국 중·고등학교 남·여 단체전 경기로 8월 중 9일간 치러질 계획이다. 전국에서 80여개팀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다. 이처럼 순창군이 대규모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축적된 유치 노하우와 체육관련 공무원들의 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을 수시로 방문해 스포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다.

군 체육관계자는 "이번에 유치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기자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